

## 자료 소개: 『문사기상』(問槎畸賞)

박상휘\*

1. 머리말
2. 『문사기상』의 구성
3. 통신사에 대한 우월의식
4. 『문사기상』 간행과 소라이학의 등장
5. 야마가타 슈난의 의견

### 1. 머리말

『문사기상』(問槎畸賞)은 1711년 일본을 방문한 조선 통신사와 소라이학파(徂徠學派)에 속한 문인들이 주고받은 시문과 편지를 수록한 필답집이다. 지금까지 일본에 전하는 통신사 필답자료는 주로 한일우호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이 자료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자료에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하나는 조선문화 내지 조선문화에 대한 일본 문인의 멸시적인 관점이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가 조선통신사를 이용해 자기 학파를 일본에 알리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 자료는 일본문단 및 학계의 동향과 통신사의 내적 연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국내의 『문사기상』에 대한 연구로는 박창기와 임채명의 논문이 있다. 박창기는 주로 문학교류의 관점에서 『문사기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고, 임채명은 소라이가 쓴 평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sup>1)</sup> 이 글에서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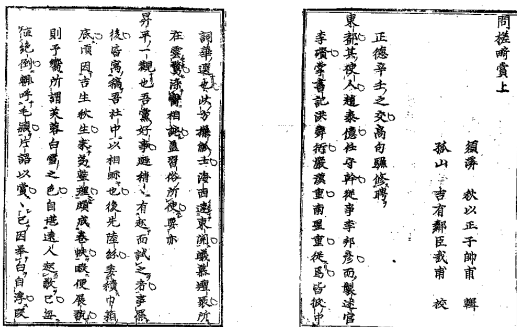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1) 박창기, 「조선시대 通信使와 일본 荻生徂徠門의 文學交流」(『일본학보』 제27집, 한국일본학회, 1991); 임채명, 「『問槎畸賞』의 性格에 대하여」(『泂上古典研究』 제29집, 열상고전연구회,

논문과는 시각과 문제의식을 조금 달리 해 소라이 학파 문인이 통신사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문사기상』의 간행이 소라이 학파의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문사기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문사기상』의 구성

『문사기상』은 『광릉문사록』(廣陵問槎錄)과 합쳐 『문사이종』(問槎二種)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며, 그 간행시기는 1712년 겨울로 추정된다.<sup>2)</sup> 상·중·하 3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권마다 ‘問槎二種’이라는 큰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崎賞’이라 부기(附記)하고 권차를 기재하였다. 소라이의 제자 아키토 단엔(秋元澹園, 생몰년 미상)이 편집하여 요시다 고잔(吉田孤山, 생몰년 미상)이 교정하였다. 맨 앞에 다나카 도코(田中桐江, 1668~1742)의 서문이 실려 있다. 상권에는 소라이의 제언(題言), 야마가타 슈난(山縣周南, 1687~1752) 및 이리에 자쿠스이(入江若水, 1671~1729)가 통신사와 주고받은 수창시, 그리고 그들과 소라이가 주고받은 편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에 동행하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와 마츠우라 가쇼(松浦霞沼, 1676~1728)의 수창시도 수록되어 있다.



자료1. 『문사기상』 상권에 보이는 소라이의 제언(題言)

2009).

2) 平石直昭, 『荻生徂徠年譜考』(東京: 平凡社, 1984), 88면.

중권에는 안도 도야(安藤東野, 1683~1719)와 통신사의 수창시, 소라이가 가쇼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소라이가 슈난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하권에는 슈난과 통신사의 수창시, 슈난이 소라이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가장 뒤에 핫토리 난카쿠(服部南郭, 1683~1759)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시와 편지의 본문 옆에 작은 글자로 소라이의 평어가 적혀 있다.

### 3. 통신사에 대한 우월의식

통신사에 대한 소라이 학파 문인들의 평가는 매우 신랄하다. 『문사기상』(형편없는 통신사의 글을 같이 감상하기)이라는 제목부터가 매우 도발적이다. 『문사기상』의 서문<sup>3)</sup>을 쓴 다나카 도코는 『장자』(莊子)를 인용하면서 통신사를 ‘하백(河伯)에, 자신의 학파 문인들을 ‘동해약(東海若)에 비유하였다. 하백과 동해약(『장자』에서는 북해약(北海若)으로 되어 있다. 일본이 동쪽에 있음을 의식해서 ‘동해약으로 바꾼 듯하다)은 모두 『장자』 「추수(秋水)에 나오는 상상의 인물로, 하백은 황하(黃河)의 신이고 동해약(북해약)은 북해(北海)의 신이다. 천하에서 가장 아름답고 광대한 바다는 황하라고 자랑하던 하백은 황해보다 훨씬 넓은 북해를 보고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한다. 북해약은 하백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바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물 안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비소(卑小)함과 세계의 광대함을 타일러준다. 즉, 다나카 도코는 통신사를 우물 안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소라이 학파가 그 우물 안 개구리에게 더 큰 바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식으로 통신사와 소라이 학파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는 통신사를 『장자』에 나오는 지리소(支離疏)와 애태타(哀駘它)에 비유하면서 “어찌 모두 문사(問槎)의 기상(崎賞)이 아니겠는가?”라고 하기까지 하

www.kci.go.kr

3) 『문사기상』의 서문과 발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杉田昌彦, 『『問槎崎賞』の序跋について』(『季刊 日本思想史』 第49號, 東京: ベリかん社, 1996)가 있다. 이 글에서 서문과 발문 및 본문의 내용을 해석할 때 이 논문을 참조하였다.

였다.<sup>4)</sup> 지리소는 기형(畸形)을 가진 불구자이며, 애태타(哀駘它)는 얼굴이 추악한 사람으로 모두 『장자』에 나오는 인물이다. ‘문사는 조선통신사라는 뜻이고, ‘기상은 ‘奇賞, 즉 ‘奇文共賞(기이한 글을 같이 감상한다)이라는 뜻인데, 도쿄는 ‘奇를 ‘병산, ‘불구라는 뜻을 가진 ‘畸로 바꿔 ‘문사기상’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이와 같은 통신사에 대한 우월의식은 핫토리 난카쿠가 쓴 발문(跋文)에도 드러나 있다. 그는 소라이 학파를 ‘우레[雷霆]에 비유하고 통신사를 ‘귀머거리[聾者]에 비유하면서 우레처럼 일본 문단을 진작시킨 소라이 학파가 있는데도 통신사가 그 우레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sup>5)</sup>

제자들 못지않게 소라이가 통신사를 보는 시선도 매우 신랄하고 냉소적이다. 소라이는 자쿠스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삼한(三韓)의 포악함은 『수사』(隨史)에서 일컬어졌는데 우리 원면왕(猿面王)과 싸웠지만 이길 수 없었소. 그 후 문(文)으로 우리를 이기려고 팔도(八道)에서 뛰어난 자를 추려내고 병사(聘使)를 따라 동쪽으로 왔으나 여전히 족하(足下)에게도 이길 수 없었고 우리를 뛰어넘을 수도 없었소.”(中卷 35a)<sup>6)</sup>라 말하였다. ‘원면왕’이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를 가리킨다. 즉 소라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일본이 조선보다 월등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 소라이는 야마가타 슈난에게 보낸 편지에서 통신사와 자쿠스이가 주고받은 수창시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소라이는 통신사의 시를 보고 망연자실하였다고 하면서 통신사가 “송원(宋元)의 구괘[宋元之舊]를 답습하고 있고 자쿠스이의 시에 제대로 수창할 수도 없었다고 하였다. 또 이어서 통신사와 시문을 수창하기 위해 한시 짓기에 애쓰는 사람들을 냉담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유쾌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시문 교류를 하고자 통신사에게 물려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다.(中卷 23a~24b)<sup>7)</sup>

4) “夫東壁之文汪洋洋洋，殆無涯涘。而無有河伯，何見東海若乎？(…)支離疏之頽隱於齊，會撮指天，哀駘它之以惡駭天下。豈不皆問槎之畸賞乎？”

5) “雷霆之奮發也，則能驚物，而聾者恬焉，於文亦然。(…)哉吾黨之諸君，一轟文場，而三韓諸子，恬乎猶弗聞焉。”

6) “夫三韓獷狎見稱于隋史，而不能與吾猿面王爭勝也。後來迺欲以文勝之，則輒拔八道之萃，從聘使東來。猶且不能勝足下而上之矣。”

7) “及取子徹書所附西人詩以讀之，迺又爽然自失焉。亡論卑靡一沿襲宋元之舊，是三韓土俗使然。

수창시 옆에 작은 글자로 적힌 평어에서도 소라이는 통신사의 시를 혹평하였다.<sup>8)</sup> 그 당시 일본 문인들과 가장 활발하게 시를 수창하고 일본에서 높은 명성을 떨쳤던 이현(李璣)의 시에 대해서 “정교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추하다. 마치 송나라 사람처럼 혐오스럽다.”(似工却醜 宛然宋人, 面目可憎: 上卷 9b)라든지, “이는 너무 속된 말이다.”(這甚俚語: 上卷 9b)라든지, “어리석은 질문이다.”(陋問: 下卷 13a)라고 하면서 매우 신랄한 말로 혹평하였다. 예외적으로 서기(書記) 남성중(南聖重, 1655~?)의 시에 대해서는 “서쪽에서 온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 또 이 시만 뛰어나다. 그렇지만 풍기(風氣)에 구애받고 있는 것이 아쉽다.”(西來唯斯人亦有斯詩. 雖然風氣所囿可惜哉: 上卷 7b)라든지 “강직하고 힘이 있다.”(骨硬氣適: 下卷 23a)라고 하여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남성중조차도 자쿠스이와 겨룰 수 있을 뿐, 슈난만 못하다고 보고 있었다.(下卷 23a)<sup>9)</sup>

○奉和東郭李公高韻 周南  
 大○留○赤○日○淵○下○達○相○適○餘○毫○而○垂○天○鵬○翼○過○  
 四○壯○剪○留○赤○日○淵○下○達○相○適○餘○毫○而○垂○天○鵬○翼○過○  
 林○海○帶○而○龍○旌○出○曙○山○南○裡○郢○歌○飛○白○雲○老○來○仙○  
 骨○觀○朱○顏○三○三○酬○唱○惜○竹○盡○不○識○我○時○更○商○湖○  
 夜○已○運○明○會○遂○賞○歌○  
 慈○博○異○來○見○醜○態○  
 ○奉呈席上四公 周南  
 鳳○馭○五○來○文○毛○羽○一○何○奇○蔡○赤○瑤○瑤○頭○上○青○瑤○

○城○十○年○吳○亦○同○從○遊○最○喜○俊○英○中○選○恩○離○別○在○  
 朝○養○一○月○空○留○照○天○宮○  
 奉席上諸詞伯 東郭  
 日○東○形○勝○兩○雄○淵○馬○島○風○煙○伯○仲○間○竹○樓○仙○象○臨○  
 日○東○形○勝○兩○雄○淵○馬○島○風○煙○伯○仲○間○竹○樓○仙○象○臨○  
 碧○海○聲○遠○漁○人○迹○青○山○居○民○敬○客○多○寬○搜○詩○老○逢○  
 久○有○好○韻○最○喜○吾○行○不○落○莫○綺○筵○椽○燭○坐○清○陶○  
 上○下○  
 放○云○

자료 2. 『문사기상』에 보이는 소라이의 평어

卽其和子徹詩，猶且不能變子徹意而發之窘窘乎，既受病于韻與對之間。是未可以子和之詩，而況對足下量也。(…)時時從旁冷眼以觀諸人日夜謀其所以禦乎敵者，疾首呻吟聲聞外也，無乃更大快哉。”

8) 『문사기상』에 실린 소라이의 평어에 대해서는 임채명, 앞의 논문 참조.  
 9) “僅足與若水抗衡耳，詎謂次公之敵。”

통신사의 시문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인 시선은 소라이의 문학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문사학(古文辭學)을 내세운 소라이는 성당(盛唐)의 시를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한시의 창작 방법을 가르칠 때도 성당시를 암송시켜 철저히 성당시를 모방할 것을 장려하였다.<sup>10)</sup> 또 마츠우라 가쇼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의 시인 중에서 규범으로 삼을 만한 문인은 당나라의 한유(韓愈, 768~824)와 유종원(柳宗元, 773~819), 명나라의 왕세정(王世貞, 1526~1590)과 이반룡(李攀龍, 1514~1570)뿐이라고 하였고, 송나라의 구양수(歐陽脩, 1007~1072)나 소식(蘇軾, 1036~1101)과 같은 문인은 규범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일본 문인 중에 볼 만한 사람은 아베노 나카마로(阿倍仲麻呂, 698~770) 밖에 없고 그를 빼고는 일본에는 수천 년 동안 볼 만한 문장이 없다고 하였다(中卷 20b~21a).<sup>11)</sup> 아베노 나카마로는 당나라 시대에 견당사(遣唐使)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이백(李白, 701~762)과 왕유(王維, 701~761)와 교류한 문인이다. 소라이가 나카마로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그가 이름 높은 당나라 시인과 교류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소라이는 고문사학의 문학론에 완전히 경도되어 있어 성당시와 얼마나 유사한가를 기준으로 모든 시문을 평가하였는데, 통신사에 대한 소라이의 신랄한 시선은 이와 같은 그의 극단적인 문학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 4. 『문사기상』 간행과 소라이학의 등장

이상과 같이 『문사기상』에는 통신사에 대한 매우 멸시적이고 공격적인 시선이 담겨져 있는데, 또 한편으로 『문사기상』의 간행은 그 당시의 소라이

10) 소라이의 문학론에 대해서는 日野龍夫, 「徂徠學派の役割」, (『江戸の儒學 日野龍夫著作集 第一卷』, 東京: ぺりかん社, 2005)를 참조.

11) “唐唯韓柳, 明唯王李, 自此以外, 雖歐蘇諸家亦所不屑爲. 何況輓近乎. 何況吾東方乎. 東方唯詩一晷衡, 上下數千年, 雖無文章可也.”

12) 杉田昌彦, 앞의 논문, 83면.

학파에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sup>13)</sup>

통신사가 귀국한 다음해인 1712년 통신사 필담집이 잇달아 간행되었다. 1712년 5월에 간행된 『계림창화집』(鷄林唱和集)과 같은 해 12월에 간행된 『칠가창화집』(七家唱和集)은 통신사와 일본 문인들이 주고받은 필담과 수창시를 집대성한 필담집이다. 특히 『계림창화집』은 15권 8책으로 된 대규모의 총서로 시모노세키(下關: 지금의 아마구치 현山口縣 시모노세키 시下關市)에서 에도(江戸)까지 통신사와 만난 일본 전역의 문인들의 글이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계림창화집』에는 야마가타 슈난의 시문이 조금 실렸을 뿐, 소라이 학파에 속한 다른 문인들의 시문은 한편도 게재되지 않았다. 이어서 12월에 간행된 『칠가창화집』에는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 1621~1698) 문하에 속한 문인들의 시문만 수록되었다. 소라이 학파 문인들의 시문은 두 번에 걸쳐 통신사 필담집의 간행 사업에서 배제된 것이다. 소라이는 자신의 학파를 배제한 사람이 이토 진사이의 제자 기타무라 도쿠쇼(北村篤所, 1647~1718)라고 의심하고 있었다.<sup>14)</sup> 실제로 『계림창화집』을 편집한 세오 요셋사이(瀬尾用拙齋, 1691~1728)는 진사이의 문하생이었다.

그 당시 일본 문단에서 이토 진사이가 설립한 사숙 코기도(古義堂) 출신의 문인들, 그리고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를 비롯한 기노시타 준안의 제자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소라이는 이토 진사이와 아라이 하쿠세키에 대해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토 진사이를 몹시 증오하였는데, 이는 1703년 소라이가 진사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롯된다. 소라이는 진사이에게 평소부터 진사이를 학문적으로 존경한다는 것, 진사이의 문하에 들어가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진사이는 이 편지에 대해 답장을 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버렸다. 소라이는 진사이에게 답장을 못 받은 것에 큰 굴욕감을 느꼈다. 게다가 진사이의 문집에 입문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긴 자신의 편지가 승인 없이 실리자 소라이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sup>15)</sup> 또 소라이는 그 당시 도쿠가와 막부 장

13) 『문사기상』의 출판 경위 및 통신사 필담집의 편집과정에서 소라이 학파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서는 日野龍夫, 『服部南郭傳攷』(東京: ぺりかん社, 1999), 113~116면 및 446~452면에 자세한 기술이 있다.

14) 日野龍夫, 앞의 책, 448~452면.

군의 측근이었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갖고 있었으며, 『정담』(政談)에서는 아라이 하쿠세키의 정책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sup>16)</sup>

이와 같이 소라이는 그 당시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이토 진사이와 아라이 하쿠세키에 대해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학파의 문인으로 인해 통신사 필담집의 편집과정에서 자신의 학파가 배제당한 것이 소라이를 더욱더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일본 문단에서 무시당한 소라이는 『문사기상』의 간행을 통해 자신의 학파를 일본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 점에서 소라이의 고제(高弟)인 야마가타 슈난이 통신사를 만나 명성을 얻은 일은 소라이 학파를 일본 전역에 알리는 큰 기회가 되었다. 『문사기상』에는 소라이가 야마가타 슈난을 극찬한 글이 빈번하게 나온다.

야마가타 슈난은 시모노세키 출신의 문인으로 에도에서 소라이에게 배운 후 고향에 돌아가서 초슈 번(長州藩)의 번교(藩校)인 메이린칸(明倫館)의 학두채주(學頭祭酒)가 되었다. 소라이학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한 문인이다. 그는 시모노세키에서 통신사를 만나 시를 수창하였는데, 그 때 통신사에 동행하고 있던 호슈와 가쇼가 그를 매우 칭찬하였다. 자쿠스이가 소라이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통신사가 셋츠(攝津: 지금의 오사카 부大阪府 일대)에 왔을 때 이리에 자쿠스이는 통신사와 시를 수창하였는데, 그 때 호슈가 시모노세키에서 만난 슈난을 ‘해서(海西)에 둘도 없는 선비(上卷 28a)라 극찬하면서 슈난이 소라이의 제자인지 물었다고 한다. 호슈와 가쇼는 원래 기노시타 준안의 제자인데, 다른 학파의 문인에게 제자가 칭찬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소라이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가쇼에게 편지를 보내 제자인 슈난을 자랑하면서 제자를 칭찬해준 그들에게 “당신들 두 사람(호슈와 가쇼를 가리킴-인용자)이 참으로 우리 당(黨)과 취향을 같이 함을 알겠습니다.”(識足下二君者, 實同臭味吾黨矣: 中卷

15) 이토 진사이에 대한 오규 소라이의 반감에 대해서는 今中寬司, 『徂徠學の史的硏究』(東京: 思文閣出版, 1992), 68~73면 참조.

16) 今中寬司, 앞의 책, 235면.

17) 통신사의 필담집 출판 사업에서 배제당한 것에 대한 반발심이 『문사기상』 출판의 배경에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日野龍夫(1999), 앞의 책, 448~452면; 杉田昌彦, 앞의 논문, 84면 참조.



20a)라고 하였다.

또 슈난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내가 어찌서 한인(韓人)을 위하여 그대를 중히 여긴 것이겠는가? 그대의 명성이 이것을 계기로 하여 크게 드높아지기 때문이다.”(吾豈爲韓人故而重次公乎. 次公之名藉是隆隆乎起故也. 中卷 26a)라고 하면서 슈난의 시를 성당시(盛唐詩)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극찬하였다. 평어에서도 슈난의 시 옆에 “씩씩함과 아름다움은 견줄 데가 없으니 왕세정도 이보다 나올 수 없다.”(雄麗無比, 元美莫過: 上卷 12b)라든지 “성당(盛唐)의 묘경(妙境)을 크게 얻었다.”(大得盛唐妙境: 上卷 17a)라고 적어 슈난의 시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문사기상』에는 슈난의 시가 몹시 빼어나다는 점이 특히 강조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슈난의 명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라이 학파의 명성도 높아진다는 사정이 있다. 실제로 통신사와의 필담을 계기로 슈난의 명성은 일본 전역에 널리 알려졌고 그에 따라 소라이 학파의 문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문단에 인식시킬 수 있었다.

『문사기상』의 간행을 출발점으로 소라이는 잇달아 저작을 출판하였다. 1714년 『護園隨筆』, 1715년 『譯文筌蹄』에 이어 1727년에 『徂徠先生學則』과 『徂徠先生答問書』가 출판되자 소라이학(徂徠學)은 일본에서 일세를 풍미하였다.<sup>18)</sup> 그런 점에서 『문사기상』의 간행은 소라이학이 일본 문단에 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5. 야마가타 슈난의 의견

마지막으로 슈난이 소라이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라이를 비롯해 소라이 학파의 문인들은 대개 통신사를 멸시하였는데, 슈난은 달랐다. 그는 소라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통신사를 ‘각실(慤實), ‘돈방(敦龐), ‘충후(忠厚)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현(李璲)과 가장 깊이 교류하였고 그의 시문은 일찍이 일본을 방문한 성완(成琬, 1639~?)이나 홍세태(洪世

18) 소라이의 저작과 출판에 대해서는 今中寬司, 앞의 책, 158~167면 참조.

泰, 1653~1725)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통신사의 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허물을 두세 명의 문인에게 덮어씌우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下卷 27b~28b)<sup>19)</sup>

슈난은 통신사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긴 하지만, 만나지도 않으면서 멀리서 시선을 던졌던 다른 문인들과 비교해볼 때, 그가 통신사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www.kci.go.kr

19) “其人愨實敦厯忠厚相與 孝孺於李磻尤睦. (….) 竊謂磻詩比諸往日成洪格調固異鈞之, 其力亦能齊鑣已. 文迺殊優, 琬世泰雖爲之負羈勒不爲屈也. (….) 大氏韓人所作, 雖調熟穩貼不比此間之麗率, 而概有懦色 (….) 然一朝歸咎夫二三人者擯排焉則冤.”

참고문헌

1. 단행본

- 平石直昭, 『荻生徂徠年譜考』, 東京: 平凡社, 1984.  
今中寛司, 『徂徠學の史的研究』, 東京: 思文閣出版, 1992.  
日野龍夫, 『服部南郭傳攷』, 東京: ぺりかん社, 1999.  
日野龍夫, 『江戸の儒學』, 『日野龍夫著作集』 第一卷, 東京: ぺりかん社, 2005.

2. 논문

- 박창기, 「조선시대 通信使와 일본 荻生徂徠門의 文學交流」, 『일본학보』 제27집, 한국일본학회, 1991, 305~328면.  
임채명, 「『問槎崎賞』의 性格에 대하여」, 『冽上古典研究』 제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5~40면.  
杉田昌彦, 「『問槎崎賞』의 序跋について」, 『季刊 日本思想史』 第49號, 東京: ぺりかん社, 1996.